

- 목적	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표이다.
- 고려 요소	<div data-bbox="215 129 1330 181">▶ 고려 요소 범위</div> <div data-bbox="215 186 1330 756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 -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.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-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-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(市街化)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-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- 도로(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)·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(開水路)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(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 -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(垓地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)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-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</div> <div data-bbox="215 761 1330 813">▶ 핵심 요소</div> <div data-bbox="215 818 1330 1025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제 위치의 적성성 - 해제 면적의 적성성 - 광역도시계획과의 연계 - 도시의 확장성 고려 - 주변 지자체와의 연계 - 풍수지리와의 지맥의 연결성 </div>